

### 벤투호 최종예선 '가시밭길' '홈 3연전' 싹쓸이가 승부처

"9월 2일 이라크, 7일 레바논 장·단점 파악 끝났다"



FIFA WORLD CUP Qatar 2022

한국축구가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향한 도전을 앞두고 있다.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이 이끄는 축구국가대표팀은 9월 2일 이라크 전(서울월드컵경기장), 9월 7일 레바논 전(수원월드컵경기장)을 시작으로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에 돌입한다.

월드컵 최종예선은 '좁은 문'이다. 아시아에는 4.5장이 배정됐다. 한국이 속한 A조와 B조 1·2위가 본선에 직행하고 조 3위는 플레이오프(PO)와 대륙간 PO를 통과해야 본선 무대를 밟는다. 2위 이내에 진입하지 못하면 불투명한 미래에 직면한다.

한국은 가시밭길을 걸어야 한다. 우리를 제외한 모든 상대국들이 중동에 속했다. 이란과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시리아, 레바논은 이동거리도 짧고 시차나 환경 적응이 필요가 없다.

월드컵으로 향한 마지막 관문. 벤투 감독은 냉정한 시험대에 올랐다. 과거 대회를 돌이켜봐도 최종예선은 쉽지 않았다. 사령탑 교체가 빈번했고, 최종예선과 본선을 다른 이가 지휘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음에도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독이 경질된 사례도 있다.

그럼에도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 훗날 남는 것은 과정이 아닌 결과다. 최종예선은 상황과 상대, 환경 탓을 할 틈이 없다. 오심과 중동 특유의 텃세, 침대 축구로 불리는 시간지연 등 각종 변수를 극복하는 힘이 필요하다.

벤투 감독은 관중 입장이라 최대의 홈 어드밴티지를 포기하면서까지 수도권에서 최종예선 홈 2연전을 고수했다. 30일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소집 훈련을 시작할 태극전사들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초반 흐름이 중요하다. 9월 2경기와 10월 7일 시리아 전까지 홈 3연전을 싹쓸이해야 남은 7경기를 여유롭게 풀어갈 수 있다. 질 낮은 플레이를 일삼는 중동에 맞서 예쁜 축구를 고수할 이유는 없다. 투박하고 거칠어도 결실을 얻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라크, 레바논 전력분석을 마친 벤투 감독은 "상대 장·단점을 파악했다. 긴 플레이타임을 가져가면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볼 점유율을 최대한 높여 상대의 밀집수비를 부순다는 의지다. 26명 엔트리를 선발하며 측면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 배경이기도 하다.

"최종예선은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될 것"이라는 출사표를 던진 벤투호의 미래는 어떻게 열릴까. 그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 멀티골 폭발 이청용, 26R 최우수선수



이청용

K리그1(1부) 울산 현대의 베테랑 미드필더 이청용(33)이 '하나원큐 K리그1 2021' 26라운드 최우수선수(MVP)에 뽑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2일 울산문수경기장에서 열린 수원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멀티 골을 몰아치며 울산의 3-1 역전승을 이끈 이청용을 26라운드 MVP에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청용은 전반 38분 설영우가 왼 측면에서 뒤로 흘려준 공을 오른발 눈스톱 슈트로 연결해 첫 골을 넣었다. 올 시즌 리그 1호 골이자 지난해 8월 30일 FC서울전 이후 약 1년 만에 터트린 득점이었다. 후반 37분에는 상대 지역 왼쪽에서 수비 맞고 나온 공을 오른발로 가볍게 차 올려 수비진을 벗겨낸 뒤 왼발 슈트로 추가골을 성공시켰다. 울산의 역전승으로 끝난 이 경기는 라운드 베스트 매치에 선정됐고, 울산은 라운드 베스트 팀에 이름을 올렸다.

K리그2(2부) 26라운드 MVP는 부산 아이파크 원정에서 2골·1도움을 올려 김현 상무의 6-0 대승에 앞장선 허용준이 차지했다.

이승우 기자 raul1649@donga.com

### 토틀넘 의무팀 "손흥민 이상무"

햄스트링 부상 의혹에 직접 소통 3월에도 같은 곳 다쳐 출전 불발 큰 변수 없으면 30일 귀국 예정

공교롭게도 벤투 감독이 9월 최종예선 2연전에 출전할 26명 엔트리를 발표하기 전날이라 우려가 컸다. TV 중계를 지켜본 대한축구협회(KFA) 의무 스태프가 곧장 손흥민에게 연락해 "병원에 갈 만큼 나쁜 상태가 아니다"는 답을 들었고, 이를 보고받은 벤투 감독은 계획대로 손흥민이 포함된 명단을 공개했다.

축구국가대표팀 '캡틴' 손흥민(29·토틀넘)이 9월 국내서 열릴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2연전에 예정대로 출격할 전망이다.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이 이끄는 A대표팀은 9월 2일(서울월드컵경기장)과 7일(수원월드컵경기장) 각각 이라크, 레바논과 격돌한다.

손흥민은 22일(한국시간) 올버햄턴과의 2021~2022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라운드 원정경기에 선발 출전했으나 후반 27분 다리를 절며 해리 케인과 교체됐다. 영국 언론들은 당시 "손흥민이 워밍업 도중 의무 스태프와 대화한 뒤 라커룸에 들어갔다"고 테이핑을 한 채 경기에서 빠졌다.

이날 워밍업을 일찍 마친 손흥민은 왼쪽 햄스트링(허벅지 뒷근육) 부위에 검은색 테이핑을 감고 72분을 뛰었다. 평소처럼 적극적인 스프린트와 슈팅 시도를 했음에도 토틀넘 누누 산투 감독은 "경기를 뛰지 못할 상태는 아니지만 선수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찜찜함이 남았다. 손흥민은 올해 3월에도 왼쪽 햄스트링을 다쳤다. 원정 한·일전을 앞두고 벤투 감독은 그를 호출했지만 토틀넘으로부터 "출전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적이 있다. 더 철저한 체크가 필요했다. 특히 햄스트링은 손흥민처럼 스피드와 많은 활동량이 주무기인 선수에게는 아주 민감한 부위다.

다행히 그때와는 상황이 다른 듯 하다. KFA는 선수와의 연락과는 별개로 토틀넘 의무팀과 직접 소통해 "(손흥민은) 아직까지 별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 부상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의미다.

큰 변수가 없다면 손흥민은 29일 왓포드와 EPL 홈 3라운드를 마친 뒤 귀국해 A대표팀의 소집훈련에 참여한다. KFA는 선수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며 신중하게 합류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이강인

### 6월 이어 9월 A매치 소집명단서도 제외

## 또 밀렸다, 이강인 '시련의 연속'

3월 한일전 제로톱 나섰지만 실패 올림픽서도 제대로 보여준 것 없어 소속팀 2G 결정...이적설만 무성 벤투 감독 "전술적 이유 때문에 제외"



이강인

축구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파울루 벤투 감독과 이강인(20·발렌시아)의 첫 만남은 2019년 3월이었다. 이강인은 볼리비아·콜롬비아와 2차례 평가전을 앞두고 A대표팀에 처음 소집됐다. 벤투 감독은 스페인 무대에서 경쟁력을 보여준 이강인의 '가능성'을 높이 샀다. 세대교체의 주역으로 이강인을 선택했을 법하다. 당시 평가전 출전은 불발됐지만, 이강인을 향한 한국축구의 기대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 해 여름 폴란드에서 열린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골든볼을 수상하며 한껏 주가를 높인 이강인은 그동안 6차례 A매치를 뛰었다. 2019년 9월 조지아와 평가전을 통해 데뷔전을 가진 뒤 스리랑카, 레바논, 멕시코, 카타르 등과의 경기에 나섰다. 가장 최근 경기는 올

3월 일본과 평가전이다. 그런데 역대 최악의 한·일전으로 기록될만한 경기(0-3패)에서 이강인은 보여준 게 없었다. 손흥민(토틀넘) 황의조(보르도) 등이 빠진 가운데 이강인은 제로 톱으로 나섰지만 실패했다. 벤투 감독도 "상대를 분석해 수비 라인의 균형을 파괴하고자 선택했으나 잘되지 않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아마 벤투 감독은 일본전을 통해 이강인의 기량을 다시 평가했는지 모른다. 전술적인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이강인에 대한 기대감을 접었을 수 있다. 가장 큰 무기인 날카로운 킥과 패싱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기동력과 수비력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아니나 다를까. 벤투 감독은 9월 A매치 기간 치를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2경기에 나설 2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강인의 이름은 없었다. 6월에 이어 연속으로 소집명단에서 빠졌다. 도쿄올림픽의 여파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벤투 감독은 "올림픽에 나갔기 때문에 안 뽑은 것은 아니다"면서 "전술적, 전략적 이유 때문이다. 다른 선수들이 대신해 선발됐을 뿐"이라고 직설적으로 설명했다. 쉽게 말해 경쟁에서 밀린 것이다. 무한경쟁을 펼쳐야 하는 대표팀에서 감독의 판단은 절대적이다. 감독의 전술 구상에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한국축구의 미래'라도 태극마크를 달 순 없다.

이강인은 앞서 올림픽에서도 실패를 경험했다. 김학범 감독의 올림픽대표팀

에서도 이강인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제대로 보여준 건 없었다. 사실상 주전경쟁에서도 밀렸다. 올림픽대표팀도 8장에서 멕시코에 패하며 조기 귀국했다.

대표팀뿐 아니라 소속팀에서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시즌 개막 2경기를 모두 결장한 가운데 현재 이적 관련 소문만 무성할 뿐이다. 최근엔 방출설까지 흘러나왔다. 자존심 상할 일이다.

다시 한번 선발 끈을 꼭 묶어야 할 시간이다. 우선 소속팀을 결정하고, 하루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한다. 이강인은 아직 성장이 필요한 나이다. 경기를 뛰면서 기량을 끌어올려야 한다. 자신의 주무기는 더욱 날카롭게 가다듬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경쟁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다보면 또 기회는 오기 마련이다. 능력을 증명한다면 대표팀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위기를 맞았지만, 이번 시련을 통해 한층 성숙해지는 것도 이강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최현길 기자 choi92@donga.com

## 송민규, 오늘 친정 포항에 이적 첫골 쓸까?

많은 잠음 속 전복행...골 아직 없어 포항 강상우 "좋은 선수 많다" 각오



송민규

'하나원큐 K리그1 2021' 27라운드에선 팬들의 눈길을 끌 만한 치열한 맞대결들이 펼쳐진다.

'송민규 데비'로 관심을 모으는 전북 현대-포항 스틸러스전이 25일 오후 7시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같은 날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임시로 안방을 공유하게 된 수원 삼성과 수원FC의 '수원



송민규

데비'가 치러진다. 포항에서 전북으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많은 잠음이 있었던 송민규는 이번 라운드의 주인공이다. 그는 2020도쿄올림픽 참가 이후 전북에 합류해 4경기에 출전했지만 아직 공격 포인트가 없다. 친정팀을 상대로 침묵을 깬지 주목된다. 전북은 선발이든 후반 조커든 송민규를 기용할 것이 유력하다.

포항 선수단은 전복전을 단단히 버리고 있는 분위기다. 포항은 송민규 없이도 리그 3위에 오를 정도로 잘 버티고 있다. 왼쪽 윙어로 나서 2경기 연속골을 넣은 강상우는 "포항엔 여전히 좋은 선수들이 많다. 경기력 때문에 (송)민규가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수원 삼성과 수원FC의 맞대결도 흥미롭다. 수원종합운동장의 잔디 보수 공사로 수원FC는 올해 후반기 전 경기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치르게 됐다. 그 후 두 팀이 처음 격돌하는 경기다. 후반기 흐름은

최근 4승1무1패의 성적을 거둔 수원FC가 앞선다. 라스가 같은 기간 5골을 넣어 리그 득점 선두(13골)를 달리고 있고, 양동현, 박주호 등 국내 선수들은 희생적인 자세로 팀에 기여하고 있다.

반면 수원 삼성은 최근 흐름이 좋지 않다. 전반기에 선두권 경쟁을 할 정도로 성적이 좋았지만 후반기 들어 체력적인 문제를 드러내며 1무5패로 부진하다. 상승세의 주역이던 '매탄소년단'의 핵심 정상빈이 부상으로 이탈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동석 수원 삼성 단장은 "수원FC가 공격적인 투자로 많이 성장하고 있어 같은 연고지 팀으로서 응원한다"면서도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분발할 것이고, 좋은 경기를 기대한다"며 멋진 승부를 약속했다.

이승우 기자 raul1649@donga.com